

“나주 ‘동학 사죄비’는 한일 화해·상생의 모델 될 것”

죽림동 시민공원·독립운동기념관 중 한 곳에 건립 건립 주도한 日 동학기행단 10월 제막식 참석키로

일본인들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의 만행에 사죄하는 뜻을 담아 오는 10월 나주시에 세우기로 한 '나주 동학농민혁명군 희생자를 기리는 사죄비' (4월 24일자 광주일보 6면) 건립 장소가 두 곳으로 좁혀졌다. 나주시 죽림동 시민공원과 나주 독립운동기념관 가운데 한 곳이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동학농민혁명 사죄비 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10일 오후 나주시민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사죄비 건립 배경과 경위, 건립에

정 부지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사죄비 건립의 주체는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시민 동학기행단'과 나주시, 원광대 원불교 사상연구원이다.

당초에는 '위령비' 형식으로 추진됐지만, 일본군의 잔인한 학살 작전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담아 '사죄비'로 변경됐다.

나주는 동학농민군 토벌 전담 부대였던 일본군 후비 보병 제19대대가 1895년 1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35일간 호남초토영에 주둔하며 학살을 자행했던 현장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일본 시민단체와 논의 끝에 사죄비 비문에 "1894년 12월 10일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가 나주성에 입성한 이래 최후 항쟁 중 이던 동학농민군들이 근대식 소총과 전술로 무장한 일본군의 '전원살육 작전'으로 처절하게 희생됐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부지는 조울 중이지만 대상지는 나주시 죽림동 시민공원과 나주 독립운동기념관 두 장소 중 한 곳이 될 예정이다.

시민공원은 동학농민혁명군이 처형된 나주시 남외동 나주초등학교가 건너편에 있어 의미가 있지만, 나주시 LG화학공장 부지 내에 있는 공원으로 아직 공작의 최종 답변을 받지 못했다.

나주학생운동독립기념관은 나주시가 시 소유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지만, 동학

농민혁명과의 관계는 없다. 다만 나주 학생운동도 항일 봉기라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죄비 제막식은 일본인들도 함께 할 예정이다. 제막식 당일 후지여행사의 동학답사 2개 팀이 나주를 찾기로 했다.

사죄비 건립을 주도한 일본인 나카츠카 아키라(95·나라여자대) 명예교수와 이노우에 카츠오(80·롯데카드) 명예교수도 일본에서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나카츠카 교수는 고령에 폐암투병 중인 탓에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사죄비의 구체적인 형태도 정해졌다. 둘 중에서 귀하다는 '보령오석'에 양면으로 비문이 새겨질 예정이다.

양면에는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로 '동학농민군

이 일본군의 '전원살육작전'으로 처절하게 희생됐다'는 내용과 함께 '과거의 깊은 상처를 간직한 나주 미래의 상생, 평화의 나주로 만들고자 한일 두 나라의 양심있는 지식인과 뜻 있는 한일동학기행 참가자들이 나섰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죄비 하단 좌대에는 사죄비를 세우는데 적극나선 나카츠카 교수와 이노우에 교수, 한일동학기행 참가자 일동으로 세기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다.

나천수 사죄비건립추진위원회 대표는 "이번 '동학농민혁명군 희생자를 기리는 사죄비'는 가해와 피해의 역사를 뛰어넘어 한·일 두 나라 시민들에게 화해와 상생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일제강제동원 등 일본과 얽힌 여러 가지 역사적 문제에 대해 일본인들의 의식과 행동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인 기자 kdi@

광주, 내년 초등 임용도 '절벽'...6명만 선발

전남 13명 줄어든 150명 선발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를 6명만 선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홈페이지에 2024학년도 초등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6명으로 예고했다. 전남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13명 줄어든 150명이다.

시교육청은 중등의 경우 지난해 17명 보다 3명 늘어난 20명, 도교육청은 지난해 229명보다 21명 증가한 2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유치원 교사는 광주 3명, 전남은 20명으로 예고했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로 3108명, 중·고등학교 교사로 390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초·중등 외에 각 교육청은 유치원 297명, 특수교육 680명, 보건 341명, 영양 246명, 사서 75명, 전문 상담 28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올해와 내년 사전 예고 인원을 비교하면, 초등은 11.7%, 중등은 5.1% 각각 줄어든다.

초등 교사의 경우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5.4%), 인천(-19.6%), 울산(-12.7%), 세종(-83.3%), 경기(-13.4%), 강원(-19.4%), 충북(-67.5%), 전북(-8.9%), 전남(-8.0%), 경북(-19.9%), 제주(-13.0%) 등 11곳이 올해보다 선발 인원을 줄일 것으로 예고했다.

반면 서울(10%), 충남(32.7%), 경남(18.7%) 등 3곳은 선발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고된 선발 인원은 다소 변동 가능성이 있다.

각 교육청은 정년·명예퇴직자, 학생과 학급 수 등을 반영해 9~10월께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한다.

교육부는 초등 교사 3100명 내외, 중등 교사 4500명 내외 수준이 선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복절 의미 되새기며 8·15 광복절을 앞두고 9일 오후 광주시 북구청 어린이집 원생들이 태극기를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임용 심사제 도입’ 전남교육청 주요 보직 인사

김여선 정책국장 등 12명

전남교육청이 김여선 교육자치과장을 정책국장에 승진 임용하는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자 주요 보직 임용 대상자 12명의 인사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책국장은 김여선 교육자치과장이 전보인사됐으며, 교육자치과장은 정병국 담양중 교장, 유초등교육과장은 김영신 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장, 중등교육과장에 이지현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자리를 옮겼다.

김정희 정책국장은 학생교육원장으로 임용됐으며, 나주교육장은 변정빈 나주반남중 교장, 담양교육장은 이경애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곡성교육장은 노명숙 유초등교육과장, 구례교육장은 신제성 나진초 교장, 보성교육장은 권순용 순천여

중 교장, 해남교육장은 이자영 담양수북중 교장, 영암교육장은 김광수 영암고 교장이 각각 임용됐다.

이번 인사는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로 지정된 영암교육장과 임기 만료 교육장 임용에 심사제가 도입됐다.

유치원 원장과 교장 경력 1년 이상인 직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자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해 주요 보직 인사에 반영했다.

도 교육청은 임용 심사제가 지원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 평가방식에 대한 현장의 대안을 반영해 개선할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공평과 공정에 초점을 두고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며 “역량 중심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실현을 위해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5자 실무교섭 회의 제안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노조원 60여명이 56일째 파업 중인 가운데 병원 측은 노조를 포함한 '5자 실무교섭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병원, 노동조합, 시민사회 모두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의 빠른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며 “타협과 정상화를 위한 5자 실무교섭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5자 실무교섭 회의의 참가 대상으로 광주시와 광산경찰서, 노동감동관, 수탁기관인 빛고을의료재단과 병원집행부, 노동조합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공공병원의 구조적인 적자는 공익적 지원만으로 단숨에 해결될 수 없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다 해도 절차적, 행정적 과정도 거쳐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의 지킴이 공공병원을 정상화하려면 하루빨리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병원은 “노조와 병원 모두 지역적인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노사 간 합의'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병원 또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테니 노동조합도 함께 해 달라”고 제안했다.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노조는 운영 재단이 빛고을의료재단으로 바뀐 뒤 임금체제 개편 등을 추진한 데 반발해 지난 6월 15일부터 파업을 이어 왔다. 노조원 일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애 극복” 표현 편견 조장 인권위 “통용 차단 필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및 A시 자치단체장에게 ‘장애극복’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장애인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표현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 B씨는 “A시가 장애인대상 후보자 공고를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인 ‘장애극복’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진정을 냈다.

/정병호 기자 jusbh@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쿡!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쿡!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쿡!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과비를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둔촌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